

NLL 넘은 北어선 57시간 탐지 못한 軍



1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소형북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3일 동안이나 군의 작전 책임구역인 동해상에 머물렀지만 전혀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은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했고, 산책을 나온 주민이 이들을 발견해 112에 신고할 때까지 군과 해경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0일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 탑승했다.

11~12일 위장 조업을 한 해당 선박은 12일 오후 9시에 NLL을 넘었다. 13일 오전 6시경 울릉도 동방 30노티컬마일(약 55km) 해상에서 정지했다.

그날 오후 8시경 기상 악화로 표류하다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했고 14일 오후 9시경 삼척 동방 2~3노티컬마일(약 4~5km)에서 엔진을 끈 상태로 대기했다.

삼척항에 곧바로 접근하지 않고 밤 사이 해상에 대기한 것은 아간에

동력을 켜고 해안으로 접근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사격 가능성을 우려한 행동으로 분석됐다.

어선은 15일 해가 뜬 이후 삼척항으로 출발해 오전 6시20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 끝부분에 정박했다.

북한 어선이 12일 오후 9시 NLL을 넘어 15일 오전 6시20분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57시간이 넘는 동안 군과 해경은 어선의 동태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

14일 하루 동안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삼척항으로 동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동안에도 군과 해경의 감시체계에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에 접근할 때 NLL 부근으로 경비함 여러 척이 경계 작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P-3C 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도 정상적으로 초계 활동을 펼쳤다.

심지어 군 당국은 북한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늘어난 5월말 이후 이들이 NLL을 넘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경계 작전을 강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함경북도 출항, 12일부터 NLL 이남서 계속 항해 13~14일 울릉도~삼척 이동...제지 없이 삼척항 정박 軍감시장비·해경 CCTV 찍혔지만 남측 선박 오인 정경두 국방장관 “경계 실패,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

결과적으로 군과 해경은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도 3일 가까이 우리 영해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선박을 탐지하지 못했다.

또 지난 15일 오전 6시15분경 삼척항 인근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에는 삼척항으로 접근하는 북한 선박의 모습이 1초간 2회 포착됐다.

삼척항으로 드나드는 선박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청과 해경의 CCTV(폐쇄회로)TV에도 해당 선박의 모습이 찍혔지만 조업 활동을 마친 남측 어선으로 판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함경북도를 출발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과 선원들은 오전 6시50분경 산책을 나온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신고자는 차림새가 특이한 북한 선원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주민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북한 주민 2명은 방파제로 올라와 1명은 서 있고 다른 1명은 앉아 있었다. 나머지 2명은 선박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인민복, 다른 1명은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 4명은 복장과 관계없이 민간인으로 1차 확인됐고 대공 용의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4명 중 2명은 최초부터 귀순 의도를 갖고 출발했다고 진술했고 나머지 2명은 본인 의사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타고온 북한 선박은 현재 동해 1함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으며, 어구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경계 밀도를 높이고 침투가 예상되지 않는 곳은 (경계) 밀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해 보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군과 해경의 해안 경계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경계작전 지휘 책임자 등의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계작전 실패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나경원 “손혜원·민주, 상상할 수 없이 당당한 태도...국정조사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복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여당까지 그동안 불타기해왔다. 이 사건 결과가 발표되니까 무소속 아니 모른다며 논쟁 하나 내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끝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전날 문화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

대표 회동에서 문 의장의 경제원탁 회의 제안에 대해 “사실 경제정책 문회를 주장한 게 다른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한 철회, 사과 이 부분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한 축이 있다면 추경을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데 대해선 경제 전체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라며 “형식에 대해선 불분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의사 일정에 따라서 국회의장에게서 무조건 분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회담은 결렬됐다”라며 “국회의장에 말씀드리다. 만약 일반적으로 여당 요구에 따라 (일정을) 잡고 국무총리 시정 연설을 하게 한다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모든 국회 분회의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경고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0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혜원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韓 제대로 역할하는지 의문”

손혜원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최근 국제관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6월의 남은 10일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황이 곳곳에서 펼쳐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고 28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됐다. G20회의 직후에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이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을 증명해 보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국 외교가 종래한 기로에 서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지는 것은 물론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재현돼 우리 경제가 대단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들여온 대북관계도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잘했다’ 50% vs ‘잘못했다’ 36%

민주·정의당 지지층서 긍정평가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49.9%(매우 잘했다 30.8%, 잘한 편 19.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35.6%(매우 잘못했음 20.8%, 잘못된 편 14.8%)로 나타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4.5%다.

긍정평가는 더불어 민주당(87.4%)과 정의당(86.7%) 지지층 진보층(78.2%)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도층(49.8%), 40대(61.3%)와 30대(57.0%), 50대(51.4%), 20

대(42.8%), 광주·전라(64.1%)와 경기·인천(55.3%), 서울(52.8%), 대전·세종·충청(42.8%)에서도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자유한국당(85.7%)과 바른미래당(51.7%) 지지층, 보수층(68.8%), 부산·울산·경남

(51.6%)에서 대다수였다. 60대 이상(44.3%)과 대구·경북(48.4%)에서도 부정평가가 다소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50명 중 50명이 응답해 5.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호남신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